

아마골프 대축제 오늘 '티샷'

순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의 가을 잔치인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속에 26일 개막된다. 호남최초 4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40팀, 160명의 아마추어 골퍼들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 묶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 개막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160명 기량 뽐내

지난 5일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3일만에 참가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아마추어 골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번 대회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여수, 광양, 경남, 충남 등지의 골퍼들이 참가한다.

골프 저변확대와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전라남도, 함평군 후원과 대한화재, 대한조선의 협찬으로 US-GTF-KOREA(미국골프지도자협회 한국지부)가 진행을 맡는다.

남녀 최강자전 및 신페리오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최강자전에서 우승한 남녀 각 1명에게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VIP회원대우의 특전이 주어진다.

신페리오방식 우승 및 최강자전 준우승 남녀 각 1명에게는 역시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회원대우가 제공된다.

신페리오방식 준우승 남녀 각 1명은 함평다이내스티CC 1년간 준회원대우를 받게 되며 출신인 상 최초 1명에게는 대형 승용차가 주어진다.

이번대회 참가자를 위한 특전으로는 남자 77타, 여자 82타, 장년부(만 41세~49세) 79타, 시니어(만 50세 이상) 82타 이하 스코어를 낸 참가자들에게 US-GTF(미국골프지도자협회)티칭프로 선발 시험 실기테스트 합격권이 부여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앤서니 강 4위·위창수 5위

애플프투어 베트남 마스터스 최종

25일 베트남 호아빈의 피닉스골프장(파 72)에서 열린 아시아프로골프투어 하나은행 베트남 마스터스대회 마지막 4라운드

에서 재미교포 앤서니 강(35)은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멤버인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이날 3타를 줄여 7언더파 281타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역시 재미교포인 이한주(31·클리블랜드)와 모종경(36)은 나란히 6언더파 282타로 공동 9위를 차지해 13명의 톱10 선수들 중

네 자리를 한국 선수들이 차지하게 됐다.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강지만(31·토마토저축은행)은 3언더파 285타, 공동 17위에 머물렀다. 2오버파 290타를 친 김형성(27·삼화저축은행)은 공동 35위.

니라트 차프차이(태국)가 12언더파 276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시몬 그리피스(잉글랜드)와 플라폴 차올리트(태국)가 2타 차 공동 준우승을 나눠 가져다.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 출전한 김연아가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요정 '꿈의 200점' 도전

김연아 그랑프리 5차 대회 우승...내달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2007~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12월 13~16일·이탈리아 토리노) 2연패와 더불어 여자 싱글 최초로 '꿈의 200점' 돌파에 도전장을 내민다.

김연아는 지난 2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치러진 그랑프리 5차 대회 '러시아컵' 프리스케이팅에서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133.70점)을 얻으면서 자신의 생애 베스트인 197.20점으로 가깝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미 3차 대회에서 짜릿한 역전우승을 차지했던 김연아는 5차 대회까지 2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그랑프리 점수 30점을 획득,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30점)와 함께 시즌 성적 상위 6명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 김연아는 이날 올 시즌부터 기술요소에 대한 강화된 채점 규정으로 아무도 넘지 못

한 190점을 뛰어넘었다.

김연아가 이번 대회에서 받은 총점 197.20점은 아사다(199.52점), 이리나 슬러츠카야(러시아·198.06점), 사샤 코헨(미국·197.60점)에 이어 역대 여자 싱글 5위의 기록이다.

또 김연아의 이번 프리스케이팅 점수(133.70점)는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가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역대 최고점(133.13점)을 0.57점 높은 새로운 기록이다.

김연아의 올 시즌 남은 과제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그랑프리 파이널 2연패 도전이다.

지난해 12월 김연아는 시니어 데뷔 첫해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2006~2007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 출전, 허리부상의 약재를 먹고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에 올랐던 아사다를 누르고 역전 우승으로 한국 피겨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장식했다. 김연아가 이번 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또 한번 우승 메달을 차지한다면 2연패 달성과 함께 당당히 '피겨 여제'로 인정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여자 싱글 최초로 200점대 달성이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 쇼트프로그램의 점프 과제 중 더블 악셀(공중 2회전 반)에서 타이밍을 잃어 싱글로 처리해 점수를 깎았다. 실수 없이 처리했다면 더블 악셀 기준점수 3.50점에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싱글 악셀의 기준점수 0.8점에 과제 실패로 0.5점이 깎여 0.3점만 받고 말았다.

골프장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광주	3,500	광명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주	8,200	한평	7,400

상담 문의 (062)351-0095



'지존' 신지애

상금 10억·시즌 9승

'화려한 마감'

KLPGA ADT챔피언십 우승



KLPGA ADT챔피언십에서 우승, 시즌 9승을 올린 신지애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KLPGA제공

'지존' 신지애(19·하이마트)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07년 마지막 정규대회 ADT챔피언십을 역전 우승으로 장식하며 통산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다.

신지애는 25일 제주 서귀포시 스키힐 골프장(파72·6천24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5언더파 211타로 시즌 아홉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신지애는 올 시즌 9승 중 5승을 최종일 역전 우승으로 따내며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했다. 또한 올해 KLPGA 18개 대회에 출전해 50%라는 놀라운 승률도 기록했다.

전날까지 4타차로 앞서 있던 임선욱(24)은 신지애의 맹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2언더파 214타로 준우승에 그쳤다.

상금 6천만원을 보낸 신지애는 통산 상금 10억4천800만원을 기록, KLPGA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선수가 됐다.

2006년부터 정규 투어에 출전한 신지애는 33개 대회만에 통산 상금 10억원을 넘어서 당분간 이 기록을 깨는 선수는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신지애는 또 KLPGA 대상과 최저타수

상(70.06타), 상금왕(6억1천450만원), 다승왕(9승)을 2년 연속 휩쓸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 69.72타로 KLPGA 사상 처음으로 60대 평균 타수를 기록했지만 2년 연속 이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신지애는 3라운드에서 고교생 스타였지만 '드라이브 입스'로 고전했던 임선욱, 2부 투어 상금왕 김혜윤(18·하이마트)과 챔피언즈에 편성돼 샷 대결을 벌였다.

임선욱은 7번홀까지 버디 1개, 보기 3개 2타를 잃었지만 8번홀(파3)에서 4m짜리 버디 퍼트를 넣었다.

이 때까지 2타를 줄이며 추격하던 신지애는 8번홀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고 4퍼트를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며 2타를 잃어버렸다.

순식간에 3타차로 다시 벌어져 역전 우승이 멀어지는 듯 했지만 신지애는 9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병커에 빠뜨리는 위기를 파로 막아내고 후반부터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10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홀 옆 30cm에 붙여 1타를 줄인 신지애는 11번홀(파

4)에서 두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3)에서도 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타수를 줄이지 못한 임선욱과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신지애는 16번홀(파4)에서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춰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임선욱도 파퍼트를 넣지 못하는 바람에 단독 선두를 꿰찼다.

17번홀(파3)에서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해 한숨을 쉬었던 임선욱은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해 사실상 우승컵을 넘겨 줬다.

신지애는 마지막홀에서 세번째 샷을 홀 1m에 붙인 뒤 버디로 대회를 마감하며 팬 서비스를 했다. 1오버파 217타를 쳐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친 김하늘(19·코요모 엘리트)은 2007년 신인왕을 확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드라이브 입스 = 티잉그라운드에서 서번 몸이 뻗뻗이 굳거나 드라이버 샷을 할때 원인을 돌발적 근육경련이 일어나 샷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고질적인 현상.



김동주-이대호 거포 듀엣 "감 잡았어"

24일 오키나와에서 끝난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대표팀과 상비군의 10차례 평가전에서 단연 주목을 받는 김동주(전 두산·왼쪽)와 이대호(롯데·오른쪽) 쌍포다.

12월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대표팀 4~5번 타자로 나선 김동주와 이대호는 평가전에서 불꽃타를 휘두르며 타격 컨디션을 조율했다.

김동주는 8경기에 출장, 팀내 타자 중 가장 많은 홈런 4방과 타율 0.542(24타수13안타), 11타점을 올리며 크게 폭발했다.

10경기에 모두 나선 이대호도 타율 0.455(33타수15안타)에 홈런 1개 6타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둘 다 시즌 내내 자신을 뒷받침 해줄 만한 선수가 없어 '고독한 해결사'에 머물렀

자만 대표팀에서는 타순에 잇달아 포진, 한 방에 대한 부담을 서로 나누면서 상대팀에는 위압감을 주고 동료에게는 기대감을 안기는 일거양득 효과를 주고 있다.

올림픽야구대표 평가전

10경기서 5할대 방망이

이밖에 우타자 이택근(현대)과 더불어 6번 타자로 번갈아 기용될 예정인 좌타자 장성호(KIA)도 평가전에서 타율 0.333(36타수12안타)에 홈런 3방, 12타점을 올리며 분전, 대만에서 맹활약을 예고했다.

그러나 투수진에서는 박찬호(LA 다저스)가 2승 1홀드, 평균자책점 3.18로 선발급 투수중에 그나마 나왔을 뿐 류제국(렘



파베이)과 류현진(한화)은 각각 평균자책점 7.36과 7.00으로 부진했다.

상비군 소속이었다가 대표팀에 마지막으로 승선한 좌완 장원삼(현대)이 2승 1홀드, 평균자책점 2.08의 안정적인 내용으로 희망을 준 게 그나마 얻은 소득이다.

한편 대표팀은 지난 24일 5차 명단 30명 중 송진우와 이승학, 강민호, 이호준 등 4명을 제외한 드림팀 26명을 확정했다.

<다음은 대표팀 명단

박찬호, 오승환, 한기주, 류제국, 장원삼, 전병호, 류택현, 권혁, 류현진, 장대현(이상 투수), 박경만, 진갑용, 조인성(이상 포수), 이대호, 고영민, 정근우, 김동주, 이택근, 박진만, 김민재(이상 내야수), 이병규, 장성호, 이택근, 이대형, 이종욱, 민병현(이상 외야수). /박진기기자 lucky@